

2026년 2/4분기
기업경기전망 보고서

2026. 3.



I. 경기전망(BS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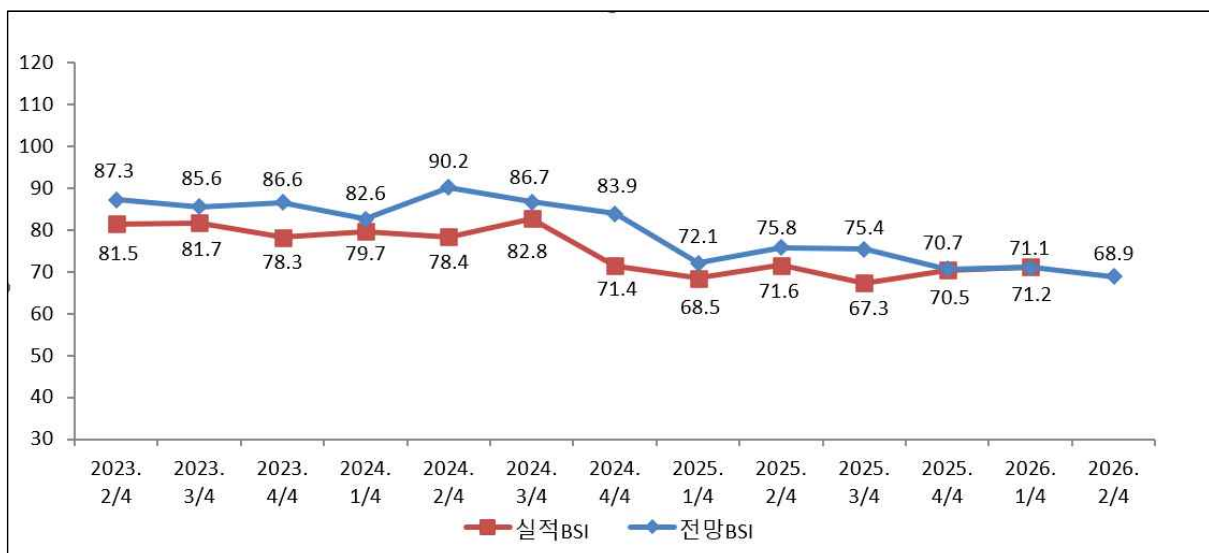
본 상공회의소 지역 내에 소재하는 1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「2026년 2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」에 따르면, 2026년 2/4분기 기업경기 전망실사지수(BSI)는 전 분기(71.1) 대비 2.2포인트 하락한 68.9로 조사되었다.

이는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, 최근 미-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 등 대외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은 이번 중동 사태에 따른 물류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의한 원재료 및 유가상승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

또한, 고물가·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가 내수부진을 심화시키고 있어, 대내외적 수요 둔화에 따른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한편, 2026년 1/4분기 BSI 실적치는 지난 분기 70.5 대비 0.7포인트 상승한 71.2로 기준치(100)를 밑돌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경산 · 청도지역 경기전망 B.S.I 추이>



구분 BSI	'23년			'24년				'25년				'26년	
	2/4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
전망 BSI	87.3	85.6	86.6	82.6	90.2	86.7	83.9	72.1	75.8	75.4	70.7	71.1	68.9
실적 BSI	81.5	81.7	78.3	79.7	78.4	82.8	71.4	68.5	71.6	67.3	70.5	71.2	

◆ BSI(Business Survey Index)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~200 사이로 표시되며,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,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.

주요 업종별 2/4분기 전망 BSI는 기계·금속업종이 70.3, 섬유 71.5, 화학·플라스틱 67.4, 기타 업종이 65.0로 나타나 전 분기에 이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주요 부문별 2/4분기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, 매출액은 69.1, 영업이익은 63.3, 설비투자가 79.6, 자금사정이 63.3로 나타나 전체 부문에서 기준치(100)를 크게 밑돌며 부진했다.

<주요 업종별 · 부문별 B.S.I>

항 목		분 기	2026년 1/4분기 실적	2026년 2/4분기 전망
업 종 별	전 제조업		71.2	68.9
	기계·금속		77.8	70.3
	섬 유		68.5	71.5
	화학·플라스틱		71.3	67.4
	기 타		60.6	65.0
부 문 별	매출액		72.7	69.1
	영업이익		76.3	63.3
	설비투자		84.0	79.6
	자금사정		66.7	63.3

Ⅱ. 기업경영 핵심변수 및 정책과제

①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무엇입니까?

	백분율
수출수요 둔화	7.1%
관세 불확실성	8.1%
원자재·에너지 비용 상승	35.4%
소비회복 둔화	9.1%
자금조달 및 유동성문제	8.0%
환율 변동성 확대	10.1%
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	21.2%
기 타	1.0%
합 계	100%

☞ 조사참여 기업의 과반이상(56.6%)이 ‘원자재·에너지 비용상승’ 과 ‘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’를 가장 영향이 큰 대내외 리스크로 응답하였다.

② 현재 시점에서 귀사의 투자는 지난해 말 또는 연초에 계획한 상반기 투자 계획과 비교해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?

	백분율
당초계획보다 축소·지연	46.8%
변화 없이 계획대로 진행	50.0%
당초계획보다 확대	3.2%
합 계	100%

☞ 조사참여 기업의 96.8%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거나 축소·지연할 것으로 응답하였다.

③ 귀사의 투자가 당초계획보다 축소 또는 지연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
	백분율
관세·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	19.4%
자금조달 여건 악화	8.3%
수요 등 시장상황 악화	27.8%
에너지·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	25.0%
국내 정책·규제 강화	5.6%
내부 의사결정 지연	0.0%
핵심 인력 부족 및 인건비 부담	11.1%
기 타	2.8%
합 계	100%

☞ ‘수요 등 시장상황 악화’가 27.8%로 가장 높았고, ‘에너지·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’이 25.0%, ‘관세·전쟁 등 통상환경 변경’이 19.4% 순으로 조사되었다.

④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공습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원·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중동사태가 현재 귀사 경영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?

	백분율
영향 있음	82.1%
영향 없음	17.9%
합 계	100%

☞ 조사참여 기업의 82.1%가 중동사태에 의한 단기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⑤ 최근 중동사태로 인해 귀사가 겪고 있는 주요 영향은 무엇입니까?

	백분율
해상운임·물류비 상승	18.1%
원자재·에너지 가격 상승	38.3%
중동 현지와의 거래·영업활동 차질	3.2%
환율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	16.9%
수출입 물류 지연	4.3%
원자재·부품 수급 불안	16.0%
중동 현지 사업장·인력의 직접적 피해	0.0%
기 타	3.2%
합 계	100%

☞ 조사참여 기업의 과반수(56.4%)가 ‘원자재·에너지 가격 상승’, ‘해상운임·물류비 상승’으로 인한 영향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⑥ 향후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, 귀사 경영에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

	백분율
많은 피해 예상	27.5%
일부 피해 예상	56.9%
피해 없음	1.9%
현재로서 판단 불가	13.7%
합 계	100%

☞ 조사참여 기업의 대다수(84.4%)가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영피해도 예상된다고 응답하였다.

7]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, 귀사 경영에 가장 크게 예상되는 피해는 무엇입니까?

	백분율
운임 상승·항로변경 등 물류차질	17.8%
원자재·에너지 비용 상승	55.4%
수출 감소 등 해외거래 위축	5.3%
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	16.1%
중동지역 사업 및 투자 차질	0.0%
생산 차질 및 납기 지연	3.6%
기 타	1.8%
합 계	100%

☞ 조사참여 기업의 과반수(55.4%)가 ‘원자재·에너지 비용상승’을 가장 크게 예상되는 피해로 응답하였다.